



가나안 이야기

「 약속의 땅을 향한 행복한 동행 」

다비드 • 하다스 • 담희 • 단아 • 도하 • 다온

shalom! 예루살렘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요? 이스라엘에도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요즘 날씨 너무 덥네요. 너무 더워서 낮에 밖에 나가는 것이 겁이 날정도입니다. 그래도 그날만 있으면 그럭저럭 지낼 만은 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차를 타고 전도 여행길에 에어컨을 켜도 밖에서 내리쬐는 뜨거운 햇빛 때문에 시원함을 좀처럼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차를 세워 밖에 나가 나무 그늘 아래에 앉아 있는데 불어오는 바람이 그토록 상쾌하고 또 시원할 줄은 몰랐습니다. 사람들의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하나님 만드신 자연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계절을 보내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손길과 돌보심의 의미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걷는 인생길 어느 계절에 서있든 그 곳에서도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의 손길이 눈에 보이는 구름으로, 선명한 불기둥으로 매번 확증될 수 있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 기적의 커피 네스카페

혹시 네스카페가 히브리어로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네스카페는 히브리어로 ‘기적의 커피’ 라는 뜻입니다. 커피를 좋아하는 저는 이 땅에 살면서 자주 그 기적을 경험하곤 합니다. 사실 이 땅에 살면서 매순간 고백하게 되는 말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은혜고 또 기적이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오늘도 저와 가족들은 그 은혜와 기적을 맛보며 살고 있고 내일도 그와 같은 역사를 기대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6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베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1월 비자 갱신 당시에 학교 비자 담당자가 이번 갱신에서 저의 비자갱신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 속에서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담당자의 우려 속에는 이미 제가 이스라엘에 학생비자로 5년(안식년 기간 포함 6년)간을 살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은혜와 여러분들의 기도로 비자를 잘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비자 갱신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 하는 과정에서 학업계획과 재정확보 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해야만 했고, 당시 3년 내에 학업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이라고 서술하였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비자를 받았고 이미 2년차를 보내고 있으며 머지않아 학업을 끝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학생으로서 이 땅에 체류하는 것이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년이면 7년차로 접어드는데 다음에도 비자를 잘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을 현재로서는 가질 수 없는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현지의 학사 일정에 따라 2학기를 마무리하고 있는 지금의 이 시점은 많은 한인 학생들이 비자를 갱신하기 위해 이모양 저모양으로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 비자 갱신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없었던 까다로운 조건들과 제한이 학교 측은 물론 비자국에서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해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대략 10~12가지)도 예전에 비해 많아졌고 또 절차도 까다로워졌습니다. 각종 증명서와 보증 및 공증 서류들이 더해졌으며 앞으로의 학업 계획과 성적표, 그것에 더해 담당 교수님으로부터 승인 레터까지 받아 오라는 등의 요구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없던 요구에 무척 당황하며 요구된 서류들을 준비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들이 계속 전개되고 있어 무척 당황하고 있습니다. 해서 아직도 비자를 받지 못하고 서류 준비와 심사대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욱이 이미 이 땅에서 학생으로 오랜 시간을 보낸 사람들의 경우 비자갱신에 제한을 두고 있어 앞으로 얼마나 더 학생신분으로 비자갱신이 가능할지도 현재로서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안정적인 비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 중동, 터키 지부모임 & 여름 사역 이야기

지난 6월 20-23일 이스라엘(갈릴리)에서는 침해선 소속 중동과 터키 지부 선생님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모임을 참석하기 위해 여러 나라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이 땅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 속에는 모교회인 대전 늘사랑교회 식구들도 참석했는데 오랜만에 서로 만나니 너무도 기쁘고 또 반가웠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각자의 사역과 삶의 자리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주안에서 문안하고 또 격려하는 시간을 대화 내내 이어갔습니다. 대화를 마치고 헤어질 시간이 다가오자 좀 더 깊은 교제를 나누지 못한 것이 끝내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이번엔 마련된 기회의 장을 통해 반가운 이들을 만날 수 있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라마단이 끝났습니다. 약 한 달간의 시간을 힘겹게 보낸 베두인 마을 사람들에게 지금은 먹을 수 있음에 대한 감사가 넘칩니다. 이제 7월이 되면 한국에서 청년 단기팀이 들어옵니다. 청년들과 함께 베두인 아이들과 여리고 소풍(7월 28일)이 계획되어 있고 이어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2박 3일 트레일 전도와 캠핑장 사역(7월 29-8월 31일)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남부 네게브 사막에 위치한 팀나에서 2박 3일(8월 2-4일)간 성막 사역이 잡혀 있습니다. 이를 위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장거리 운전과 이동간 안전을 위해 그리고 사역 가운데 귀한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더불어 8월 말부터 9월 초에 잠시 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방문 목적은 이번 늘사랑교회 중족 입약식(9월 3일) 참석과 함께 초청된 미국 사역자들과 함께 협력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또 타진하기 위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방문을 통하여 이후로 긴밀한 협력이 이뤄져 이 땅을 섬기는데 필요한 다양한 전략들과 사역적 플랫폼이 마련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십시오.



나무그늘 아래



요르단 손님



지중해 바다에서



늘사랑 가족



중동, 터키 지부모임



둘이 하나 되는 날



‘하난’

「 기도제목 」 “*Flowers will bloom where we planted together*” – David J. JUNG

1. 감사함으로 보내신 자리에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충성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2. 요압 아저씨과 마아얀 가정이 예수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소서
3. 갈릴리에 전개될 코리엘 사역을 위한 준비와 진행 그리고 적합한 처소를 주시도록
4. 현지 I*M 사역자들과 좋은 협력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더불어 주어진 기회 안에서 안정적인 Status(비자문제)가 마련 되도록
5. 7월 27 - 8월 5일 대전 늘사랑교회 청년팀과 함께할 현장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 여러분의 기도제목을 보내주시면 이곳에서 저희도 함께 중보 하겠습니다.

「 후원정보 」	「 연락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헌금: 다비드/하다스(담희, 단아, 도하, 다온) ■ 외환(하나)은행: 181-04-01159-983 ■ 예금주: 침*해*선 / TEL : 02-3775-44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헌금: 타마르/코리엘 프로젝트 ■ 외환(하나)은행: 990-007955-919 ■ 예금주: 침*해*선 / TEL : 02-3775-4471 1) 재정담당 : 최은섭 (010-5334-7856), E-MAIL: 0903ces@naver.com 2) 문서담당 : 박은성 (010-3745-2025), E-MAIL: mindlle-1@hanmail.net	<p>※ 주 소 : Eli Tavin 22/10, Jerusalem 9770001, Israel. JAESUK JUNG</p> <p>※ 연락처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대폰: +972-(0)58-6623513 (다비드) +972-(0)58-4623514 (하다스) ■ 집전화 : 070-8632-0432 ■ E-MAIL: korielpro@gmail.com <p>-----</p> <p># 이스라엘로 보내는 소포는 우체국 일반 소포(예제: CP123456789KR)만 가능합니다. EMS는 세금문제로 어려움이 많습니다.</p>